

아제르바이잔 국가협력전략

Azerbaijan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6. 5.

관계부처 합동

본 전략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작성되었으며, 국내 및 수원국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목 차

I. 원조 성과평가	1
II. 수원국 분석	2
1. 수원국 개발현황	2
2.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7
3. 수원체계 및 공여국간 협력체계	8
III. ODA 추진시 고려사항	9
IV.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10
1. 기본방향	10
2. 중점협력분야	12
3. 분야별 지원방안	19
4. 결과를	22
V. 이행전략	23
1. 협력방안	23
2. 원조효과성 및 SDGs 기여방안	24
VI.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25
1. 모니터링 방안	25
2. 평가 방안	26

I. 원조 성과 평가

□ (총괄) 지난 5년(2010-14)간 총 4,900백만 달러를 지원함(집행액 기준)

○ 무상원조 사업으로 동 기간 총 4,900백만 달러를 지원

* 프로젝트 사업: 압세론반도 재생수자원 개발중심의 물 관련 복합사업('10-15), 전자정부 교육센터 구축사업('13-'15), 나흐치반 국립대학교 교육정보화 지원사업('13-'15)

○ 유상원조 사업의 경우, 승인액은 6,550만 달러였으나, 실제 집행액 없음

* 프로젝트 사업: 직업훈련센터 건립사업('11), 피르샤기 하수처리장 건립사업('12)

<한국의 아제르바이잔 지원 추이(2010-14)>

(백만 달러, 실질가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무상	집행	4.45	11.62	6.43	10.32	16.65	49.47
	(승인)	31.04	7.64	0.89	8.67	-	48.24
유상	집행	-	-	-	-	-	0
	(승인)	-	22.00	43.50	-	-	65.5
계(집행)		4.45	11.62	6.43	10.32	16.65	49.47

자료: OECD 통계, 국무조정실 자료 참고하여 작성

□ (분야) 2010-14년간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식수공급 및 위생 분야가(57.1%)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부 및 시민사회, 교육, 운송 및 저장, 산업, 광업 및 건설 등의 분야가 상위를 차지함(집행액 기준)

<한국의 對아제르바이잔 분야별 지원 현황(2010-14)>

(백만 달러, 집행액, 실질가격)

구분	식수공급 및 위생	공공행정 및 시민 사회	교육	운송 및 저장	산업, 광업 및 건설	무역 정 책 및 규제	기타
금액	28.24	9.26	7.75	1.34	0.66	0.53	1.69
비율(%)	57.1	18.7	15.7	2.7	1.3	1.1	3.4

자료: OECD 통계, 국무조정실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 2014년도 수치는 국무조정실 집계(잠정실적)를 참고

II. 수원국 분석

1 수원국 개발현황

□ 일 반

- (개황) 남코카서스 중앙과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러시아, 조지아, 이란, 아르메니아와 국경을 접하며 인구는 970만 명(2014년)임.
- (정치) 2003년 8월 일함 알리에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 집권 중임.
 -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국내정세가 안정적이기는 하나 서방의 인권 및 언론 자유 탄압에 대한 압력, 야당 및 이슬람 세력의 소규모 반정부 소요사태, 만연한 부정부패 등은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빈곤감소) 아제르바이잔의 빈곤선 이하 생활 인구 비율은 2001년 13.2 %에서 2013년 5.3%로 감소되었음.
- (MDG 달성) 8개 목표 중 아제르바이잔은 빈곤 감소와 보편적 초등교육 목표를 달성함.

- 초등교육 수료율은 높은 반면 유아교육 등록률은 낮은 편임. 영아사망률 감소와 모자보건 개선 등에서 진전을 보였으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HIV/AIDS의 확산 속도는 늦춰졌으나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달성 속도가 더딤.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은 발전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함.

□ 경 제

<아제르바이잔 주요 경제 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1	2012	2013	2014 ^e	2015 ^f
국내 경제	GDP	억 달러	648	687	735	779	854
	1인당 GDP	달러	7,114	7,439	7,900	8,303	9,033
	경제성장률	%	0.1	2.2	5.8	4.5	4.3
	실업률	%	-	-	-	-	-
대외 거래	경상수지	백만 달러	17,146	14,986	12,498	11,346	8,918
	FDI 순유입*	"	4,485	5,293	2,619	-	-
	외환보유액	"	10,274	11,277	13,559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4), World Bank

주: e=estimate, f=forecast

- (거시경제)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까지 평균 2.2%를 기록함. 2013-16년 사이 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4.1%로 추정됨.
 - 주력산업이 에너지산업인 만큼 국제원유가 하락 시,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유함. 이를 보전하기 위해 (State Oil Fund of Azerbaijan, SOFAZ)을 예산에 전용하고 있음.
- (산업구조) 원유, 천연가스 산업 및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석유 제조업 및 농업은 투자 부진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낙후되어 있음.

- 비석유 분야 성장은 대부분 비교역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전히 원유와 천연가스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건설 분야 및 호텔, 통신 분야가 성장세를 기록함.
- 비석유 상품 수출 규모는 2011년 16억 달러, 2012년 18억 달러를 기록함.

* 산업구조 (2013) : 석유산업, 농업부문, 건설부문
 주요수출품 (2013) : 석유제품, 동광, 기호식품

- (국가신용등급)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 무디스, 피치 등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OECD 국가신용등급은 대통령의 독재체제 지속과 에너지 의존적 수출구조 등을 반영하여 5등급으로 유지됨.

* 무디스 Baa3 (2015), 피치 BBB- (2015), S&P BBB- (2015)

□ 사 회

<아제르바이잔 주요 사회지표>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인간개발지수*	0.639	0.686	0.743	0.743	0.745	0.747
1인당 GNI (Atlas, 달러)	4,320	6,939	15,123	14,593	14,982	15,725
초등학교 취학률	88	84	84	87	89	-
초등학교 수료율	90	93	90	93	92	-
중학교 취학률	-	-	86	86	87	-
중학교 수료율(lower secondary)	38.2	82.8	90.6	89.3	94.2	-
모성사망률(10만 명 당)	57	36	27	-	-	26
5세 미만 유아(영아) 사망률	74	52	39	37	36	34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74	78	80	80	80	-
향상된 위생시설 접근가능 인구 비율	62	75	82	82	82	-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 Human Development Index

- (인간개발) 인간개발지수는 2013년 0.747로 187개국 중 76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평균 수치인 0.738보다 다소 높은 수치임.
- 1인당 GNI는 2000년, 4,320달러에서 2013년, 15,725달러로 크게 증가함.
- (균형발전) 2013년 아제르바이잔의 불평등조정인간개발지수(IHDI)는 0.659를 기록하였으며 2003-12년 지니계수는 0.337을 기록함.
- (교육)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진학률은 높은 편이나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함.
- 2011년 GDP의 2.5%를 교육 분야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함. 공공 투자에 비해 교육 예산 증가폭이 크지 않아 교육의 질 제고에 어려움이 있음.
- (보건) 위생시설 접근율은 80% 이상을 기록했으나 도시와 농촌 간 접근율 편차가 큰 편임.
- 1차 진료, 팸닥터 시스템, 개인 건강관리시스템, 전문 의료종사자 교육 시스템 도입 등 농촌보건서비스의 질이 개선됨.
- 식수 접근성은 높은 편이나 상수도 유지 개선 및 관리 부족으로 인해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 질은 낮은 편임.

□ 인프라

- (전체) 아제르바이잔의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47위로 인프라 질적 수준이 높은 편이며 도로(69위), 항공(85위) 등에 개선이 필요함.
- * 2014-2015 글로벌경쟁력지수 중 인프라 부문: 4.8(144개국 중 47위)
- (교통)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동차 수가 많아지면서(수도 인구

1,000명 당 자동차 200대) 도로 수용 한계선을 넘음. 전반적인 도로상태 개선과 추가건설이 필요함.

- (도로) 기존의 수송비용을 20% 감소하기 위하여 수도권 바쿠와 샤마흐 도로를 잇는 작업이 진행 중임.

* 수송비용 감소를 위하여 고속도로 200km를 개보수하고 있음.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신호 개발과 도로마스터플랜이 계획 중임.

- (철도) 철도 인프라 증대 및 낙후된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동서 고속철도 교통회랑의 수송량을 기존의 1,100만 톤에서 2,300만 톤으로 증가하는 계획이 진행 중임.

동서 고속철도 수송 시간 또한 기존의 22시간(2009)에서 15시간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50대의 신형 전철을 공급해야 하나 아직까지 진전되지 않음. 동서 철도 회랑 구간 중 240km에 대한 개보수 작업 또한 뚜렷한 진전이 없음.

- (대중교통) 2011년 총 2개 노선의 지하철 이용객은 일일 183만 명으로 지하철의 수용 한계를 넘어섬. 이에 따라 세 개의 역 확장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2013년에 두 번째 차고지가 개장했음.

○ (상하수도) 바쿠에 위치한 하수처리 시설은 거주인구의 약 78% 정도가 이용함. 이에 반해 기타 도시 하수 처리시설은 거주인구 32% 정도만이 이용해 하수 정화처리 비중이 낮음.

- 상수 공급, 물공학, 수질, 상하수도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및 관련회사가 부족함. 이에 따라 상하수도를 관리할 수 있는 운영 체계, 재무, 회계 및 인사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함.

□ 범분야

- (환경)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과 에너지 산업(천연자원 개발산업) 확대에 의해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의 문제를 겪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정도가 심해지고 있음.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물 부족량은 5km³이나 2050년에는 9.5-11.5km³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상업 및 주택 부문에서 대체에너지 및 저탄소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100만 톤에서 3,270만 톤으로 감소한다는 목표를 세움.
- (양성평등) 지난 10년간 양성평등 관련 지수가 개선되었으나 기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남녀 간 성비 불균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특히 인간개발부문과 노동시장에서 두드러짐.
 - 중등교육 등록률은 2012년 93.7%(여성), 97.4%(남성)보다 낮음. 매 해 신생아 10만 명 당 43명의 산모가 임신으로 인한 질환으로 사망함.
 - * 임신으로 인한 사망률 (2011) : 10만 명당 43명
노동시장에서 여성비율 (2012) : 62.5% (남성 68.9%)
아제르바이잔의 성불평등 지수는 0.340로 149개 국가 중 62위를 기록함(2013).

2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 아제르바이잔 8개년 개발계획(The State Program on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PPRSD 2008-2015)
- 개발계획과 빈곤감소와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계획(The State Program on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SPPRED 2003-2005)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수립된 국가개발전략으로 4개 중점분야와 9개 전략목표 및 34개 세부추진목표를 제시함.

<SPPRSD 2008-2015 주요 목표 및 분야>

목표	분야
1. 거시경제 안정성과 비석유분야의 균형적인 개발을 통한 지속적 경제개발 2. 소득창출기회 증대와 다수 국민의 빈곤 탈피 3.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노인인구, 저소득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위험 감소 4. 난민 및 내부난민(IDPs)의 생활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체계적 활동 수행 지속 5. 기초보건 및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접근성 제고 6. 사회제반 시설개발과 공공 시스템 향상 7. 환경상황 개선과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8. 양성평등증진과 보호 9. 지속적인 제도적 개혁과 거버넌스의 향상	1. 거시경제 안정 및 경제성장 2. 고용정책 및 국민사회보장 3.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 4. 제도·정책 및 거버넌스

아제르바이잔 2020 전략: 미래에 대한 고찰

- 전통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목표를 발표함.

<아제르바이잔 2020: 주요 목표>

목표
1. 2020년까지 인재개발을 우선순위로 하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2. 2020년까지 1인당 GDP 13,000 달러 달성
3. 2020년까지 GDP 중 비석유 분야 비중 연평균 7% 달성
4. 2020년까지 비석유분야 수출 1인당 1,000 달러 달성
5. 지역경제 불균형 해소
6. 월평균 임금의 60% 수준에 달하는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

3 공여국 협력체계

공여국 협력 체계

- 2009-13년간 총 해외원조액은 총 1,277백만 달러(무상 572백만 달러, 유상 681백만 달러)이며, 무상원조 규모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반해 유상원조 규모는 2011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함.
- 동 기간 상위 공여국 및 기관은 미국, 유럽연합, IDA 임.

- 주요 공여국인 유럽연합의 경우 중점협력분야는 공공행정분야 및 교육의 질 제고, 보건 향상이며, 미국의 경우 중점협력분야는 공공 인프라 확충, 경제 성장, 보건 향상임.

III. ODA 추진시 고려사항

- 아제르바이잔은 OECD DAC의 수원국 중 고중소득국으로 분류되어 있고, 독립이후 석유개발로 확보된 자금을 낙후된 인프라에 지속 투자하고 있으나 산업 다변화, 삶의 질(교육, 상하수도, 교통 인프라 등)은 아직 발전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만 한국의 대 아제르바이잔 ODA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음.
 - 현지 대사관 및 ODA 실시 기관, 수원국 지방 및 중앙 정부 관계자들이 제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ODA 협의체를 구축해 공여된 ODA의 후속관리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아제르바이잔 정부 전략인 SPPRSD 2008-2015 만료 시기가 가까이 옴에 따라 2016년부터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입안돼 실시될 계획임. 때문에 새로운 국가 발전전략의 추진 방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ODA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추진에 있어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와 정치를 좌우하는 외부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 주요 석유 수출 파이프라인(바쿠-트빌리시-세이한, 바쿠-노보로시이스크, 바쿠-쑤사 라인 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수들 및 주변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IV.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1 기본 방향

장기개발목표
(‘05-’35)

경제구조 다변화 및 경제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중기개발목표
(‘15-’19)

인적·사회적 자본 육성, 생산성·경쟁력 강화,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 등을 빈곤감축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달성



중간목표

- ◆ 통신 분야 발전을 통한 산업 다각화
- ◆ 수자원 관리를 통한 보건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 문제 완화
- ◆ 공공 서비스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 지역 격차 해소를 통한 빈곤 문제 해결 및 사회 불평등 완화



중점분야별
성과

통신
분야

- 통신 인프라 구축 지원
- 통신 분야 인력 교육 및 훈련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 수자원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 취약지역 주민 보건환경 개선

공공행정
분야

-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지원
- 공공부문 인력 역량 강화 지원

지역개발
분야

- 농업 기술 전파, 교육 및 훈련 실시

- (지원목표) 아제르바이잔 국가개발전략(아제르바이잔 2020 전략: 미래에 대한 고찰) 및 8개년 개발계획(2008-2015)에 발맞추어 아제르바이잔의 경제구조 다변화 및 확대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양국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자 함.
 - 중점 협력대상국으로서 2020년까지의 아제르바이잔 국가개발전략에 따라 석유분야 중심의 전통적 경제구조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인적·사회적 자본 육성,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 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중점협력분야) 아제르바이잔의 개발수요 및 국가개발전략, 한국의 원조역량, 기지원 사업의 원조효과, 예상 재원규모, 분야간 연계성, 타 원조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총 지원금액의 70%를 집중 지원
 - (통신) 지식기반 경제구조 달성을 위한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인적역량 강화
 - (물관리 및 보건위생) 물관리·보건상황 개선 및 취약지역 주민들의 보건환경 개선
 - (공공행정) 공공부문 제도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지역개발)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에 기여

- (실행 전략) 對 아제르바이잔 지원의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효율성(efficien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원조조화(harmonization)의 3대 가치를 추구

- (전략 기반) 원조사업 전 과정에서 SDGs, 부산 글로벌파트너쉽 이행 전략 등 국제원조규범, DAC 권고사항 및 ODA 선진화방안 등을 준수

-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거버넌스 개선 정도에 따라 프로그램형 사업 (PBA)의 단계적 도입 및 정책일관성(PCD) 제고 노력을 통해 국내 관계기관과의 상호 조화 및 조정을 위한 협력 강화

2 중점협력분야

(1) 통신 분야

□ 개발 수요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12년 12월 채택한 “아제르바이잔 2020 전략: 미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석유자원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경제구조에서 지식기반의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신,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성장을 중요한 요소로 꼽음.
- * 세계경제포럼조사(2013-2014)에서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ICT 분야 중점화 (Importance of ICTs to government vision of the future) 순위에서 전체 143개국 중 9위를 차지함.
- 특히 2014년에는 ICT 산업 발전을 근간으로 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정보사회발전 국가전략 2014-2020 (National Strategy for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for 2014-2020)”을 채택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IC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편임.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서유럽부터 동아시아까지 유라시아 국가를 포함한 전역에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Trans-Eurasian Information Super Highway(TASIM)”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보통신 분야의 프로젝트를 추진 및 기획하고 있음.

<수원국의 통신분야 개발목표>

주요 분야	세부 추진과제	주요 추진 사업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하고 지속가능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 ○ e-커머스, e-마켓시스템 개발 ○ 전자정부 구축 ○ 글로벌 정보화사회 통합 가속화 ○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개선 ○ 디지털 방송 완전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SIM(Trans-Eurasian Information Super Highway) 프로젝트 : 유라시아 광케이블 구축사업 ○ National Computer : 교사, 학생 대상 컴퓨터 보급사업 * 대통령이 '1인 1컴퓨터'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아제르바이잔 국민에 대한 컴퓨터 보급을 중요 과제로 명시 ○ AzDATACOM : 아제르바이잔 전역에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구축 ○ 우체국의 금융서비스 도입

<아제르바이잔 IT 부문의 SWOT>

강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도의 ICT 진흥 성공 - 고급기술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 값싼 노동력 - 국제원조기구들의 지원 - 지난 10년간의 안정적인 경제발전 - ICT 시장의 발달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산업국으로서 이미지 부족 - 국제 마케팅 기술 및 경험 부족 - 프로젝트 관리기술 부족 및 소프트웨어 생산능력 부족 - 현재 ICT 회사들의 각종 행사, 캠페인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ICT 분야 기관, 협회 부족 - ICT 관련 분야 대학생 졸업생 부족
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모델과 사례 도입 - 지역권 시장의 잠재력 - 자국 제품 개발 - 수출 확대를 위한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 소프트웨어 향상에 대한 이해도 증진 - IT국가 이미지 개선 경향 - 모바일 및 인터넷의 빠른 성장
위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수요 부족 및 수출가격 하락 - 우수한 IT 전문가 인력 유출 - 신생 IT 산업국 이미지 구축 어려움

자료 : USAID, ICT Country Profile, Azerbaijan, 2013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발표하는 ICT 개발지수*에서 2013년 평가대상 166개 국가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 및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음.

* ICT Development Index(IDI) : ICT 인프라와 접근성, ICT 이용정도와 ICT 능력 등의 다양한 항목을 종합하여 정보통신 분야 발달정도를 측정하는 지수, 아제르바이잔은 2013년 64위를 기록

[2]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 개발 수요

- 아제르바이잔은 수자원의 70%가 타국 하천에서 발원하는 등 수자원이 부족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감소시 국가 간 분쟁의 소지가 있음. 또한,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공업화 및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수자원, 토지, 산림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또한 깨끗한 식수 공급, 하수 처리 등 수자원 관리는 보건위생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바,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수도 바쿠 및 주요도시의 상하수관망 보급률은 높은 편이나, 지방의 경우 수자원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 2008-2015’*에서 상수도 공급 개선 및 하수처리율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제시
- * SPPRSD(2008-2015)는 아제르바이잔 국가개발 및 MDGs 달성에 기여한 ‘빈곤 감소와 경제개발을 위한 국가 계획(SPPRED 2003-2005)의 지속적인 효과로 도모하기 위해 수립된 8개년 국가 개발 전략

- 아울러, 아제르바이잔 측은 석유·가스분야 외 산업다각화를 위해 농업 및 관광 분야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자원관리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표> SPPRSD 2008-2015 중 수자원 관련 전략목표

관련 전략 목표	세부 추진 목표	평가 지표 및 기준
사회 제반 시설 개발과 공공 시스템 향상	‘15년까지 지역단위 샘물과 지하수원 사용을 통해 각 마을에 안정적인 상수 공급을 실현하고, 중앙 상수공급 체계를 통해 전 인구에게 상수 공급	지역단위 마을에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 받는 인구비율: 46.5% ('07)
환경 상황 개선과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15년까지 전국 하수 처리 100% 달성	대도시 하수처리율: 57.9% ('06)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물 관리 분야의 성공 경험과 기술력,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관련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음.
 - * 상하수도 지원사업 : 피르샤기 하수처리장 건립사업('12, EDCF), 압쇄론반도 재생수자원 개발 중심의 물관련 복합사업('10, KOICA), 쿠르다미르 관개 및 배수망 개보수 사업('14, KOICA)
- 특히, KOICA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사업의 일환으로 압쇄론반도 재생수자원 개발중심의 물관련 복합사업 ('10-'15/2,618만불)을 추진, 해당지역 5,000여 가구에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고, 하수 처리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환경 개선 및 상수원 수질 보전의 성과 달성

(3) 공공행정 분야

□ 개발 수요

- 아제르바이잔의 취약한 거버넌스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 부문별 산업 육성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등의 각종 사회경제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여옴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최근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

- 아제르바이잔은 8개년 개발계획(The State Program on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PPRSD 2008-2015)에서 “지속적인 제도적 개혁과 거버넌스의 향상”을 9대 전략 목표 중 하나로 채택하고, ‘15년까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거버넌스와 공공부문 관리의 질적 향상을 세부 추진 목표로 설정함.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요 거버넌스 개선 전략으로 정부간, 정부 대 국민, 정부 대 기업을 연결하는 전자정부시스템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투명성 향상, 참여행정 및 정보접근성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는 전자정부 행동계획(The Action Program on Development of E-Government)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12년에는 ‘원스톱 샵(One Stop-Shop)’ 형태의 통합적 전자정부 포털시스템(Azerbaijani Service and Assessment Network, ASAN)을 구축하여 운영 중

<수원국의 공공행정 분야 개발목표>

주요 분야	세부 추진과제	주요 추진 사업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구축 ○ 국가 표준화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Azerbaijan : 국가 차원의 통합 전자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등록 시스템 마련, 전자 문서 및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 ○ 국가자격인증서비스센터(National Certification Service Center) : 전자서명 등 국가 차원의 자격 인증 시스템을 도입, 법인 설립 및 조직 활동에 대한 인증 보급
법적 제도적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제도적 개혁 및 개선 ○ 정부기관의 전자기반 행정 기법 및 매커니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정부기관에 법적 제도적 기반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개발목표 적용

□ 한국의 원조역량

-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3회에 걸쳐 UN 전자정부 평가 1위를 기록하는 등 전자정부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어 동 부문에 대한 협력대상국 정부의 수요가 매우 높으며, 타 공여국에 대비 한국의 비교우위를 부각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임.
- 특히 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IT솔루션 및 콘텐츠 개발, ICT 훈련센터 구축 및 인적 역량 강화 등의 강점을 보유
- KOICA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자동화사업('11-'13/420만불) 및 전자정부 교육센터 구축사업('13-'15/370만불)을 성공적으로 완료, 한국의 전자정부 분야 우수성 및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음

KOICA 추진사업 사례

① 지식재산권 관리시스템 자동화사업('11~'13/총 420만불)

- 사업 목적: 아제르바이잔 기술표준특허위원회(AzStand)내 지식재산권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특허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 대국민 R&D 정보 인프라 구축 및 특허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 사업 내용:
 - 아제르바이잔 특허위원회의 지식재산 행정처리를 자동화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 및 대국민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기반 구축
 - 아제르바이잔 특허행정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자재 지원
 - 기술이전 및 교육을 위한 수원국 관리자·실무자의 국내초청연수
- 사업 대상 지역: 아제르바이잔 바쿠(Baku)
- 사업 효과:
 - 지식재산기반 R&D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IT 경쟁력 강화
 - 특허청 내부 행정 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대 아제르바이잔 국민 대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 가능
 -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가능하게 하여, 향후 지재권 관련 행정업무 처리 효율 개선

② 전자정부 교육센터 구축사업('13~'15/총 370만불)

- 사업 목적: 아제르바이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보 시스템 및 전자정부 교육센터를 구축하여, 단기적으로 공무원의 전자정부에 대한 이해 증진과 ICT 역량 향상을 도모, 장기적으로 개선된 양질의 대국민 정부 서비스를 제공]
- 사업 내용:
 - 공무원 교육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 이러닝 포함 교육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기자재 지원
 - 바쿠 및 15개 교육센터 구축을 위한 기자재 지원
 - 전자정부 교육 분야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및 교육
- 사업 대상 지역: 아제르바이잔 바쿠(수도) 및 15개 지방 도시
- 사업 효과:
 - 공무원의 ICT 교육 효율성 개선 및 정보통신 역량 강화
 - 정보화 기술 기반 대국민 서비스의 현대화 및 행정 업무 효율 개선
 - 전자정부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정부서비스 이용 시간 및 비용 감소

[4] 지역개발 분야

□ 개발 수요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기존의 석유자원 중심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산업의 다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업 분야가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동 분야 개발에 많은 관심을 보임.
- 현재 아제르바이잔 고용인구의 약 40%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나, 전체 GDP 중 약 7%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관련 생산성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다방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비석유 산업분야 개발을 주요 목표로 지정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적인 농업기술 도입을 통한 농업산업 육성을 주요 전략과제로 설정,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원조역량

- 한국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농촌지역을 발전시켜 빈곤을 해소하고 도농간 격차를 줄이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새마을운동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등 지역개발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음.

3 분야별 지원방안

(1) 통신 분야

□ 기본 방향

- 통신 분야 발전을 통한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국가개발전략 핵심 과제인 지식기반 경제구조 형성에 기여
- 아제르바이잔의 통신 분야 개발전략과 연계하여 각종 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통신 부문의 역량 강화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통신 분야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의 각종 자문 지원 및 통신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을 통한 인적 역량 강화
- 현지에서 한국이 ICT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ICT 분야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아제르바이잔 측에서는 첨단 ICT기술협력에 대한 수요가 점증할 것인 바, 첨단 기술 지원 및 역량강화사업 중심의 사업협력에 가능성이 예상

(2)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기본 방향

- 아제르바이잔의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수자원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보건 환경을 개선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지방의 낙후된 상하수도관망 개보수 등을 비롯한 수자원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 기지원사업에 대한 후속지원 연계, 운영 상황 점검 및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등을 통해 원조의 효과성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기 추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여 후속 연계사업을 검토하고, 동시에 아제르바이잔 측 수자원분야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기술협력사업의 형태를 중점 추진

(3) 공공행정 분야

기본 방향

-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거버넌스 개선과 공공부문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노력에 부합하는 전자정부 고도화 관련 지원

-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 부문 제도 및 인적 역량 강화 노력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전자정부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을 비롯하여, 시스템 운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
- 행정 제도 개선, 공공재정 및 인력 관리, 전자정부 활용 등 각 부문별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각종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공공행정 인력의 역량 강화 도모

[4] 지역개발 분야

□ 기본 방향

- 아제르바이잔의 농업 관련 분야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업 소득을 증대하고 석유 산업 중심의 경제 불균형 완화에 기여
- 농업 지역 발전을 통한 도농 간 격차 해소 노력 및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한국의 기여 및 실행계획

- 한국의 성공적인 새마을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 관련 인프라 구축, 농업기술 보급, 교육 및 훈련을 통한 농업인력 역량 강화
- 한국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 농업 분야에 이를 접목한 스마트 농업을 전수하여 농업 분야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 도모

4

결과물

수원국 개발목표(아제르바이잔 국가개발전략)

: 인적·사회적 자본의 육성, 생산성·경쟁력 강화,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20년까지 지식기반 경제구조 달성

CPS 목표

: 산업 다각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중점 분야	분야별 목표	분야별 제약요인	분야별 성과	평가 지표
통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산업 발전을 통한 산업 다각화 및 지식기반 경제구조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분야 전문 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자문 지원 - 통신 분야 인력 역량 강화 지원 	<p>CPS 적합성 해당 분야 사업이 CPS 목표 달성에 적절히 발굴 되었는지 여부</p> <p>사업 정상 추진 여부 CPS에 적합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p>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 보건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 문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간 수자원 인프라 격차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인프라 구축 지원 	
공공행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제도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공부문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한 거버넌스 및 권위적인 정부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구축 지원 및 관련 분야 자문 지원 - 공공행정 인력 교육 훈련 실시 	
지역개발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촌소득 증대 및 지역격차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의 낮은 생산성 - 도농간 인프라 격차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술 보급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 교육 훈련을 통한 농업인력 역량 강화 	

V. 이행전략

1 협력방안

□ 유·무상 연계

- 사업 전단계의 유·무상 연계를 통해 유망 원조사업 발굴 및 사업의 완결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사업 발굴 단계부터 정책자문, 무상 기술협력(교육, 운영인력, 기자재 등), 유상 금융협력(대규모 건설운영자금 등) 등의 패키지형 연계 추진
- 유무상 합동 정책협의를 활성화하여 중점분야별로 원조총괄부처 및 수원부처와 합의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
-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종료된 사업에 대해 아제르바이잔과 공동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수립
- 사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일정기간 후 수원기관이 자립하여 지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에 중점
- 사업의 성격 및 리스크를 감안하여 하자보수기간을 적절히 연장하고 하자보수 업체에 대한 요건과 관리감독 강화
-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 초청 연수 등을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 민관협력

-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수준 향상, 사업의 대규모화, 채무관리 강화

- 등을 감안, 민간의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NGO 등과도 협력 강화
- 상위중소득국(UMIC)에 해당되는 아제르바이잔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인프라사업에 대해 원조자금·정책금융·민간투자 등의 패키지형 금융을 활용한 PPP 방식 지원 추진
- 국내 및 아제르바이잔 NGO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정보 공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원조 투명성과 국민 지지기반 확보

2 원조효과성 제고 방안

- (원조 조화) 중점 분야 중심으로 현지 공여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유망 협조용자 사업 발굴
 -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선진 공여국, MDB 등이 합동으로 운영중인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유망 협조용자 사업 발굴
 - MDB 협조용자를 '16~'20년 총 승인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파트너 기관도 GCF, AIIB 등으로 다양화
- (SDGs 기여) 국제 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SDGs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의 ODA 정책도 SDGs를 수용하여 정합성 제고 필요
 - 새마을운동 등 한국의 지역개발 경험 전수를 통해 빈곤·기아 종식과 지속가능한 농업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 마련
 - ODA 사업 전반에 걸쳐 성평등적 요소를 고려하여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을 증진 (아래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 권고지침 참고)

〈 성인지적 관점 적용 권고지침 〉

- ① 사업 발굴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성 분석(Gender Analysis)* 실시
* 성별 노동활동 패턴, 성별간 관계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정도 등을 조사·분석
- ② 사업 설계 단계에서는 성 분석 결과를 감안, 성과지표 및 사업계획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
* 예 : 여성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목표 삽입, 성별 분리된 목표치 설정
- ③ 사업 평가·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산출 및 성과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
* 사업의 수혜대상자 및 규모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기술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조실에서 기 통보한 ODA 사업의 성 인지적 관점 적용 지침('15.8.24) 참고

VI.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1 모니터링 방안

- (통합모니터링) 우리나라 ODA사업 전반의 정보 공유 및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평가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활용
 - 사업개시 2년 전부터 기관별 예비사업을 공유하여 ODA 사업 발굴 단계부터 사업간 연계방안을 협의하여 지속적인 관리 진행
 - 수원국 ODA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이 회의를 통해 ODA 사업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리스크 매트릭스)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국가별 중점협력분야에 대한 리스크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모니터링 시 이를 적극 활용
 - 리스크 매트릭스는 중점협력분야별 제약요인과 관리 방안을 명시하여 위험 예방과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작성
 - 시행기관은 명시된 제약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주관기관에 보고하고 필요시(합동대응 등) 수원국에게도 제공

<리스크 매트릭스 예시>

중점협력분야	제약 요인	관리 방안
1. 통신	1. 통신분야 전문인력 부족	○ 통신 인프라 구축 및 자문 지원 ○ 통신분야 인력 역량 강화 지원
2. 물관리 및 보건위생	1. 지역간 수자원 인프라 격차가 큼	○ 수자원 인프라 구축 지원
3. 공공행정	1. 취약한 거버넌스	○ 전자정부 구축 지원 및 관련분야 자문 지원
	2. 권위적인 정부 체계	○ 공공행정 인력 교육 훈련 실시
4. 지역개발	1. 농촌지역의 낮은 생산성	○ 농업기술 보급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2. 도농간 인프라 격차가 큼	○ 교육훈련을 통한 농업인력 역량강화

2 평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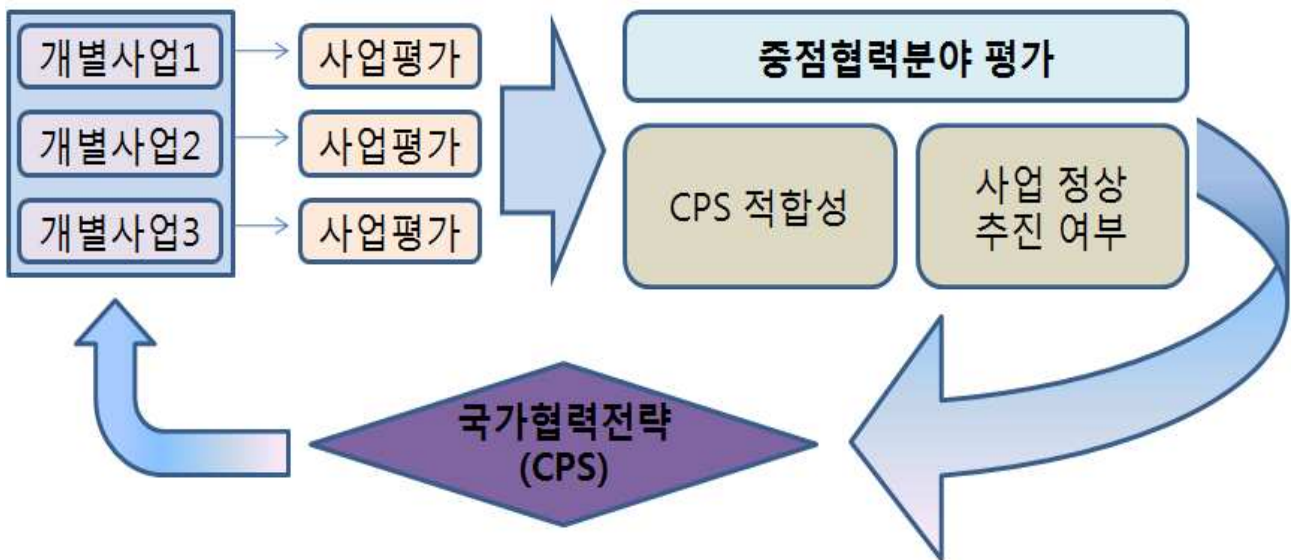
- (평가목적) 국가협력전략의 중점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 시 반영
- (평가지기) 중간점검은 CPS 수립시점으로부터 2~3년 경과 후 필요시 진행하며, 종료평가는 CPS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실시
- (평가유형) 각각의 평가는 중점협력분야별로 목표, 제약요인, 성과,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결과평가틀'을 기반으로 실시
 - (중간점검) 수원국 국가개발전략 변경, CPS 수정 필요사항 발생 등 필요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 (종료평가) 국가별로 평가의 중요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소위원회 주관의 평가와 시행기관의 자체평가를 적절히 분배하여 실시

* 단 시행기관 자체평가지 그 결과에 대해 평가소위의 심의 의결 필요

	평가지기	평가주체	비 고
중간점검 (필요시)	CPS 적용 2-3년 후	국조실 (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필요시 CPS 수정
종료평가 (필수)	CPS 종료 6개월 전	국조실, 시행기관(자체평가)	시행기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 는 평가소위의 심의·의결 필요

- (평가내용) ODA 시행사업, 중점협력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ECD DAC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 (시행사업) 사업별 평가는 사업 시행기관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하되, 가능한 범주 내에서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포함
 - (평가기준) OECD DAC 5대 평가원칙(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및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기반하되 필요시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평가
 - (중점협력분야) 시행기관의 사업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들 평가지표인 'CPS 적합성'과 '사업 정상추진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평가 절차 도식도>



- (평가환류) 개별사업 및 현행 CPS에 대한 중간점검, 종료평가, 사후 평가 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차기 CPS에 반영
 - 종료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료평가 결과 및 제언에 대해 주관기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료평가 보고서에 첨부